

이 사람

‘느린 삶 운동가’ 쓰지 신이치 교수 방한

덜 가져도 더 행복할 수 있다

“숲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동물들은 다투어 도망갔지만, 오직 벌새 한 마리가 그 작은 부리로 강에서 물을 한 방울씩 떠다 그 산 불 위에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대체 그리 해서 어찌겠단 거야?’ 다른 동물들이 모두 비웃었지요. 벌새는 답합니다.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최초로 ‘슬로 라이프’라는 말을 고안해내고 느린 삶 운동을 10여년째 펼쳐온 쓰지 신이치(57·사진·한국이름 이규·메이지학원 대학 국제학부) 교수가 한국을 찾았다. 22일 기자들과 만난 그는 남미 원주민 친구에게서 들었다는 ‘벌새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쓰지 교수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한국계 일본인으로, 1998년부터 일본과 세계를 넘나들며 슬로 라이프 운동을 펼쳐왔다. 2001년 〈슬로 이스 뷰티풀〉을 시작으로 〈슬로 라이프〉 〈벌새의 물 한방울〉 등 왕성한 집필 활동과 함께 나무



미국·남미서 원주민 공동체 체험이 밑거름
11년 전부터 환경단체 활동·저서집필 해와
“국가체계 변경 힘들어...생활 속 실천 중요”

늘보클럽이라는 환경단체를 만들어 ‘느린 삶’을 실천해 오고 있다.

그는 지금껏 세계를 지배해온 인간중심주의 서양문명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확신을 인터뷰 내내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를 기점으로 새로운 세계를 위한 새 패러다임을 만들어 나갈 희망이 돌아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과 자원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믿는 세계관이 에너지 위기, 환경 위기를 불렀다면, 이제 거기에 대응하는 것이 옛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사람과 환경이 융합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상이라는 논지다.

“지금까지 우리가 부와 행복을 한 묶음으로 여겨왔다면, 이제 떼어서 생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는 이번에 국내에 번역출간된 〈행복의 경제학〉(서해문집)에서 경제와 경제학의 패러다임을 바꾸자고 제안한다.

풍요를 위한 덧셈의 경제가 아니라 조금씩 덜 쓰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뺄셈의 경제를 제안한다. 이제 경제학은 부와 풍요를 추구

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학문이 아니라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행복의 경제학’으로 새로이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앞에서 나온 그 벌새는 무섭게 번지고 있는 산불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쓰지 교수의 답은 뜻밖에도 비판적이다. “우리는 이미 늦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불을 끄기 위해 조금씩,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벌새가 되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20대 중반이던 70년대 후반에 캐나다, 미국, 남미 등지에서 16년간 원주민들, 비주류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한 체험을 바탕으로 98년 슬로라이프 운동을 시작했다.

“작은 공동체에서 사회, 국가로 각각의 단위에서 내려오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령 국가 차원에서 현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꾸는 것은 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들부터 해야 합니다.”

글 허미경 기자 carmen@hani.co.kr, 사진 이종찬 선임기자 rheeh@hani.co.kr